



RaonAtti 9th Thailand Team April Report

목차

- Go to Chiang rai
- C.L.P project
- Town Center

일정

태국 알기

- Temple
- bazaar
- Water fall / Doi Tung
- Maesai
- Golden Triangle
- Songkran Festival

4월의 총평

관계 맺기



일정 이벤트



WELCOME TO CHIANG RAI :)

4월 3일, 한 달동안 지내던 Sankhampeang을 떠나
치앙마이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치앙라이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을 떠나니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한 달을 보낼 생각을 하니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치앙라이에 도착하자 이 곳 staff분들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저희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앙라이 Orientation

OT 를 통해서 4,5월의 일정과 이 곳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치앙라이 YMCA에서는 산캠프와 같이 랭귀지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Cleft Lip& Palate(구순구개열)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한 달동안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3번의 모금활동과 환자 가정방문 등 CLP에 관련한 활동이 주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라온아띠도 주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치앙마이YMCA에서와는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할 생각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Welcome to ♡♡♡♡
♡♡♡ Chiang Rai YMCA

치앙라이 Staff 소개

피톤
[라온아띠 담당자, day camp 관리]

피비비
[선생님, 라온아띠 support]

피넷
[C.L.P Manager]

피핀
[C.L.P Manager]

피랏
[C.L.P director]

피잇
[치앙라이 Y director]

피펏
[Ymca officer]

피랏
[Ymca officer]



치앙라이 도착 & O.T

■ 목적

치앙마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 우리가 한 일

새로운 스텝과의 만남과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

■ 느낀점

설레는 감정과 막연한 두려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
내 짐이 왜이리 많아졌을까?,
차를 오래 타서 피곤함, 아직은 어색한 스텝들,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 너무 편안함을 느꼈다.

■ 우리의 생각 나눔

좋은 환경과 제공되는 식사가 매우 편해서 이래도 될까? 라는 생각.
편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손세탁을 해야하는 자발적 불편을 어느정도 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조금 더 자발적 불편을 했더라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 우리의 고민거리

너무 편한 환경에서 살았기에 실제 마을에 들어갔을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진 삶이 아니였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발적 불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Cleft Lip & Palate

- Home visit
- Hospital visit
- Speech camp
- Fund raising
- Make a CLP VOD





Cleft Lip & Palate



처음으로 Cleft Lip&Palate 환자들을 만난 날.
치앙라이에서 저희의 주된 일은 구순구개열 아이들을 돕는 일이였습니다.
사실 구순구개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직접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만나 환자들의 상태도 확인하고, 구순구개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찾기 힘든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이 곳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OVERBROOK이라는 개인 병원의 도움으로 태국 뿐
아니라, 인근의 버마, 라오에서도 많은 환자들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คลินิก โอเวอร์บรูค
OVERBROOK CLINIC



Home Visit

수술 전후의 아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으로 메자이, 메수어이, 메짠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이나, 고산 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후속치료를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집에 갔을 때는 막상 저희가 하는 일 보다는 그저 멀뚱멀뚱 환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우리가 왜 가는 걸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계속해서 다니다보니 방문 그 자체로도 환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먼길과 시간을 다니며 일일이 아이들을 만나는 YMCA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C.L.P] Home visit

Ⅰ 목적

수술 전, 후의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아이들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

Ⅱ 우리가 한 일

아이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직접 이야기 나누기.

Ⅲ 느낀점

환자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다가, 점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직접 찾아가 만나는 YMCA의 모습을 보며,
한 번의 수술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좋았다. (지속가능성?)
크고 나서 수술 한 환자를 보고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방문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받은 여러 환자들을 만나면서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돕는 것이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Ⅳ 우리의 생각 나눔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과자를 나눠주셨는데 과자보다는 아이들 건강에 좋은 과일이 더 좋지 않을까?
치료가 끝난 아이들에게 YMCA스텝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선물 하는 것은 어떨까?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방문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

Ⅴ 우리의 고민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과자를 주는 것이 좋을까? vs 과일이 좋을까?에 대한 토론.



Overbrook Hospital / Chiangrai Hospital

CLP 아이들을 위한 가정방문에 이어서 두 곳의 병원도 방문했습니다. 한 곳은 사립, 한 곳은 공립 병원으로 두 곳 모두 수술 후의 아이들의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참여한 스피치 테라피는 수술 후의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치료입니다. 담당 의사 분이 직접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발음과 어휘 구사를 교정해주는 과정으로 수술 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치료사가 없으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체제이기에 진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C.L.P] Visit Hospital

Ⅰ 목적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후속치료 과정 참여

Ⅱ 우리가 한 일

스피치 테라피 참여, 아이들과 놀기, 의사 선생님의 진찰 참관

Ⅲ 느낀점

태국의 병원을 방문해 봐서 신기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잘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스피치 테라피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점점 나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Ⅳ 우리의 생각 나눔

Ⅴ 우리의 고민거리

호기심에 가득차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다가가는 또 다른 자원활동가 앨빈.
반면 주저하고, 망설이다 가만히 지켜만 보는 우리.
우리는 정말 언어의 장벽이 문제였을까, 의욕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의 문제였을까?

SPEECH CAMP



스피치캠프는 1박 2일 동안 의사 선생님, 간호사, 테라피스트들이 와서 1:1로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캠프입니다. 먼 곳에서

하루 동안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Home visit 때에 만났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치료받는 아이들 외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는 종이접기, 게임, 한국어 수업을 준비해 여느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수업도 하고, 같이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씩 본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금새 친해져서 저희를 잘 따랐고 저희도 즐겁게 임했던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Home visit 때에 만났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치료받는 아이들 외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는 종이접기, 게임, 한국어 수업을 준비해 여느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수업도 하고, 같이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씩 본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금새 친해져서 저희를 잘 따랐고 저희도 즐겁게 임했던것 같습니다.

[C.L.P] Speech camp

Ⅰ 목적

1년에 한 번 있는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위한 종합 검진 캠프에서 자원봉사

Ⅱ 우리가 한 일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돌보기
(한국어 수업, 종이접기, 게임, 야외 활동 ...)

Ⅲ 느낀점

가정 방문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
1년에 한 번있는 행사라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유로웠다.
SKP 데이캠프 이후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니 재밌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치료과정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Ⅳ 우리의 생각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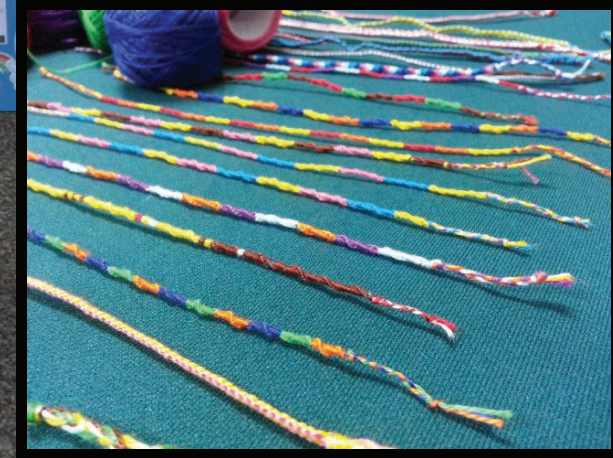
우리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6명이 있었는데,
팀을 나눠 치료과정에도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Ⅴ 우리의 고민거리

Fund Raising [4/17, 4/26, 4/2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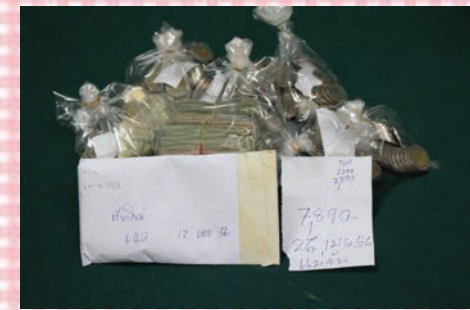
한땀 한땀 엮은
Misanga



우리끼리 연습해본 첫 fund raising (in Chiang Mai)

처음 모금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민 끝에 '손수 제작하는 정성과 담겨진 의미', 두 가지 모두 잘 어울리는 '미산가'라는 실팔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감미로운 노래와 기타연습도! 송고란 기간 동안 치앙마이에 머물며 모금활동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고란 마지막 날에 저희의 첫 모금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어도 태국어도 안되서 모두 어버버 했지만 손짓, 발짓, 표정으로 열심히 설명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덕분에 경험과 모금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Fund Raising



치앙마이에 이어서 매잔과 치앙라이 Night bazaar에서도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북적북적한 야시장에서 들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활기찬 외침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였고, 2번째라 그런지 말도 쉽게 나왔고 다가가기 수월했습니다. 수술 받은 아이들, staff들과 함께 노래와 두둑 해져가는 모금 상자에 힘든 것도 잊은 채 즐겁게 모금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돈이 모여서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C.L.P] Fund Raising

Ⅰ 목적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수술과 치료를 위한 모금 활동.

Ⅱ 우리가 한 일

구순 구개열 모금 활동을 위한 판넬 제작.
모금 활동을 해준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나눠 줄 미산가 팔찌 제작.

Ⅲ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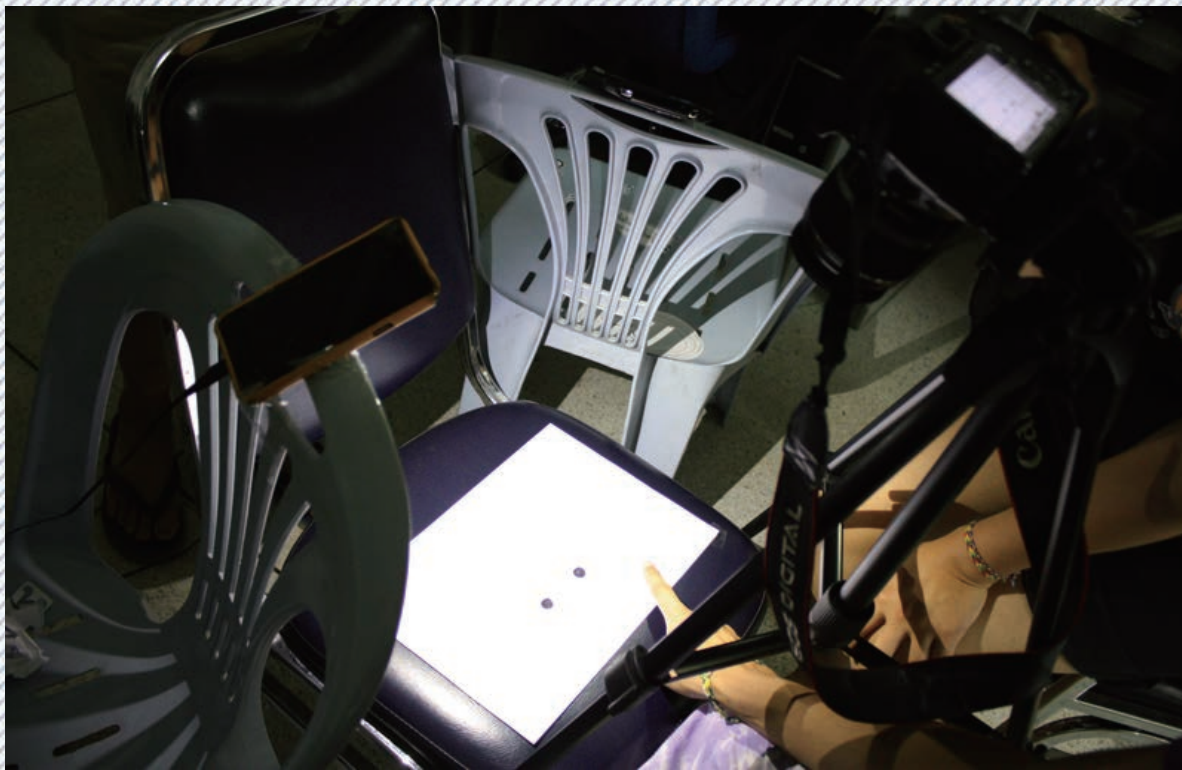
즐기면서 하니까 돈이 안모이고, 그렇다고 돈만 모으자니 재미없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태국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모금활동은 하면 할 수록 사람에게 다가가는 노하우를 찾아가는 것 같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는 일이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좋은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시장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한 번 수술비는 80만원, 그 돈은 우리에게 2달 용돈이지만
한 아이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돈이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도와주고 싶다.

Ⅳ 우리의 생각 나눔

모금함의 돈을 넣는 입구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돈을 넣기가 어려웠다. 입구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여러 국가의 언어로 '구순구개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큰 판넬을 제작해서 모금활동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Ⅴ 우리의 고민거리

시장에서 관심을 끌기위해 큰소리로 모금 활동을 한 우리, 하지만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상인 분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지만,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에 돌아가서도 다른 라온아띠들과 함께 구순구개열 아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



CLP 영상 제작



Overbrook Hospital에 CLP관련 영상을 틀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피랏의 요청으로 CLP를 주제로 한 짧은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지 고민이 많았으나, 회의를 거쳐 누구나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고, 한 컷 한 컷 그림들을 움직여 가며 촬영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처음 해보는 스톱모션 영상 제작에 아무 생각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촬영을 했으나 조명이 사진마다 달라 결국 재촬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똑같은 촬영에 짜증도 났지만 막상 다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특히 치앙라이 스텝분들도 영상을 보고 칭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뿌듯했습니다. 2분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CLP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C.L.P] Make a video clip

Ⅰ 목적

Overbrook 병원에 구순구개열 관련 영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피랏의 요청

Ⅱ 우리가 한 일

CLP 아이들에 관한 영상 제작 → Stop Motion

Ⅲ 느낀점

스톱 모션 영상을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라 조명의 중요함을 느꼈다.
시행착오 끝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기분이 좋다.
만든 영상을 보고, 스텝분들이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셔서 뿌듯했다.

Ⅳ 우리의 생각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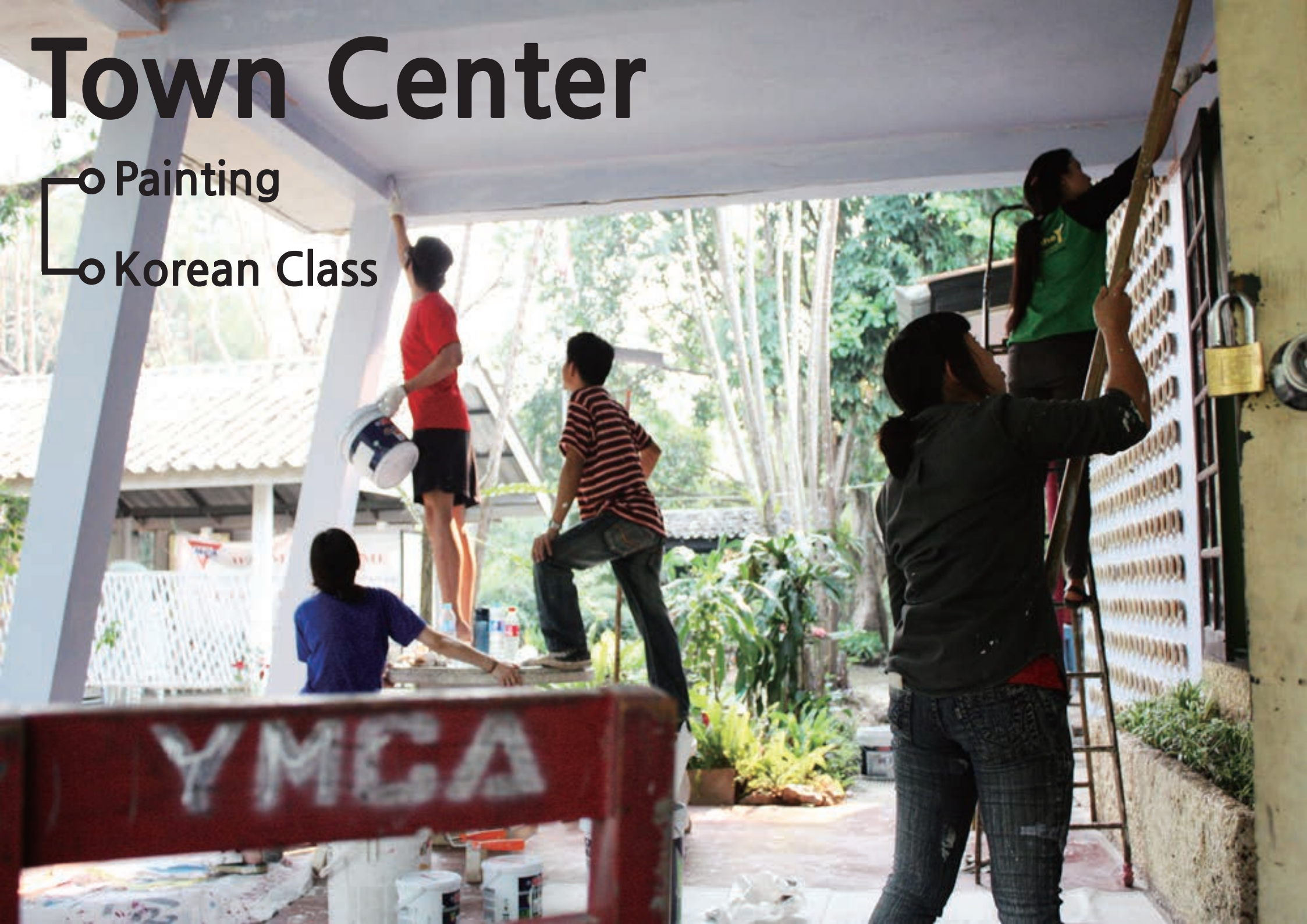
꼭 병원에 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Ⅴ 우리의 고민거리

보고서와 영상제작 기간이 겹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팀내에서 컴퓨터를 1대 더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Town Center

- Painting
- Korean Class





Painting



Town center에 있는 낡은 의자와 테이블 및 외벽, 교실벽을 새로 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3개의 교실을 페인트 칠하기로 했는데, 각 교실을 한국, 미국, 홍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페인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페인트 칠이라 긴장도 했지만 잘해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열심히 했습니다. 엘빈, 피벤, 벨, 피라, 타운센터 스텝분들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5번 정도 방문해서 작업을 하는 동안 현지 스텝분들과 우리의 작업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고, 즐겁게 일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팀원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4명이 같이 맞춰나가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Painting

Ⅰ 목적

낡고 오래된 타운센터의 교실과, 벽, 의자, 테이블을 예쁘게 꾸며달라는 피언의 요청으로

Ⅰ 우리가 한 일

벽 페인트 칠, 의자-테이블 도색, 벽화 작업

Ⅰ 느낀점

페인팅이라는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다.
일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게 아닌가?
완성된 벽화를 보고 뿌듯했다.
하지만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Ⅰ 우리의 생각 나눔

처음에 너무 의욕만 앞섰던 게 아닐까? 의욕에 앞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 저것 준비물들을 샀는데,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낭비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또 좋은 취지에서 페인트 칠을 했지만, 페인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시킨 것 같다.

Ⅰ 우리의 고민거리

서로 다른 일 처리 방식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하나에 대한 고민.



한국어 수업

치앙라이에서도 산캠프와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곳 치앙라이에서는 주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YMCA 주말 랭귀지 스쿨 뿐 아니라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있는
특수학교 그리고 speech camp 이렇게 총 3곳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간단한 인사말과 감정표현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몸짓과 연기등의 동작위주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이해도 높이고 즐겁게 수업을 했습니다.

Day camp 선생님인 피벤이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고,
피벤의 수업진행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Korean Class

Ⅰ 목적

아이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주기 위해

Ⅱ 우리가 한 일

간단한 인사말 수업

Ⅲ 느낀점

크게 비중이 있는 일정이 아니고 잠깐의 짧은 시간을 내서 수업하는 것이라 아쉬움이 컸다.
30분씩 정도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이여서 많은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말보다는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것 같다.
너무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가 한국어를 알려주기에는 조금 벅찼던 것 같다.

Ⅳ 우리의 생각 나눔

Ⅴ 우리의 고민거리

마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한국어를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



태국 알기 태국 하기



Black House (Baan Dam)



작가 : Thawan Duchanee

개인 소유의 땅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놓은 Black house에는 각종 동물의 뼈와 가죽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왓롱쿤과는 다르게 고요한 분위기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던 블랙하우스. 피폰과 빌과 함께 처음으로 치앙라이의 명소를 방문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조금더 태국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Wat Rong Kun



작가 : 찰름차이 코싯피팻

1998년부터 작가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비를 털어 건설 중인 왓롱쿤은 부처의 순수를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왓롱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나라의 재산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재산이 되면 입장료를 받고, 여러가지 부분에있어 정부가 많은 이익을 남길것이라 생각하는 작가는 매일 스피커를 통해 정부의견에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치앙라이로 가는 길에 방문하게 된 왓롱쿤은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사원이었습니다.

그 웅장함을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람봉 Dance!
(일명 태국 전통 춤)



치앙라이 명물
노래하는 시계탑!

Night Bazaar & Walking Street

산캄팜 나이트 바자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치앙라이의 나이트 바자들.

치앙라이에는 3곳의 워킹스트리트와 1곳의 나이트 바자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저녁시간에 갖는 자유로운 시간에 주로 나이트 바자를 찾아갔습니다.

숙소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저희가 시장에 가려면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치앙라이 마켓은 일단 시장들이 엄청 크며, 이곳에만 파는 독특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산캄팜과는 달랐지만, 몇몇 물건들과 그 곳에서 느껴지는 사람 냄새가 참 비슷했습니다. 새로운 음식도 먹고, 람봉(춤)축제도 구경하는 등 많은 것을 스텝들과 함께하며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뚝 WaterFall

우리나라에만 있을 법한 계곡이 태국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뜨거운 날씨에 지쳐가던 우리에게 시원한 폭포에서의 물놀이는 마치 가뭄속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태국의 자연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Doi Thung Royal garden

왕실의 정원이자 국민의 정원. 태국 사람 사이에도 유명한 왕실 정원답게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어서 늦었지만 한국의 봄을 이 곳에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빌과 함께 태국의 꽃 향기에 취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버마와
태국
걸어서 가다

치앙라이의 Maesai 라는 지역은 버마를 넘어갈 수 있는 Immigration이 있는 국경지역입니다. 국경지역이라서 많은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는 곳입니다. 입국 서류만 있다면 작은 강을 경계로 차량이나 도보로 국경을 건너 갈 수 있기에 얼굴에 노란색 분을 칠한 버마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 큰 시장도 있어서 볼거리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메자이의 명물인 스콜피온 사원에 올라가서 보니 태국과 버마, 마치 두 지역이 하나의 도시인 것처럼 비슷했습니다. immigration을 사이에 두고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두 나라를 보니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았다!

골든
트라이앵글에
가다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가기 위해 Chiang seao로 가서 보트를 탔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버마와 라오, 태국이 삼각형으로 접해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경 지대인데도 여권이 필요 없이 보트만 타면 라오, 버마를 오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돈사오라는 라오스의 한 섬을 방문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작은 섬이어서 라오스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섬에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돈사오 섬에는 가짜 가방, 뱀술 등을 팔고 있었고, 저희는 라오 맥주를 맛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crazy Chiangmai city



SONGKRAN FESTIVAL

태국에는 큰 명절중에 하나인 송크란을 저희 라온아띠 9th도
태국의 제 2의 도시 치앙마이에서 보냈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태국 불교식 음력으로,
한해가 시작되는 태국의 고유 설날이며 새해를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어른들께 새배를 드리며 건강을 기원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기도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행하는 물장난은 송크란을 맞이해 새해의 복을 빌며
물로써 지난해를 정화하여 깨끗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입니다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송크란 축제, 갑자기 물을 맞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저희도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겼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물을 맞으니 시원하기도 하고 아이처럼 신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관계맺기



New Friends



소개

경제와 영어가 전공인 22살의 태국 대학생 자원봉사자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한국말을 이해하는 대단한 친구
YMCA에서 Day camp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음

관계

Home visit, fundraising, 외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음
태국의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며 가르쳐주는 선생님같은 친구



소개

한 달동안 태국에서 자원활동을 하기위해 온 24살 영국친구
친구 Matt의 추천을 받고 태국으로 오게 되었음
의학을 전공했고, 병원에서 자원활동 중인 의사선생님

관계

우리의 영어 작문을 교정해주는 영어선생님
비슷한 나이때래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태국을 알아가는
동지



소개

대학졸업 후 봉사를 하기위해 태국으로 온 28살 홍콩친구,
YMCA에서 Day camp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음.
홈스테이를 하며 지내고 있고, 행동력이 좋은 친구

관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많은 자원활동을 해와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하며, 늘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에너지이저!

4월의 아토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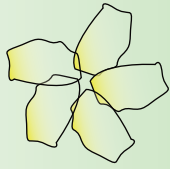
Pla

치앙라이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곳들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치앙라이 스텝들과 함께 마켓도 돌아다니고 치앙라이의 유명 관광지도 돌아다니며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볼거리, 맛있는 음식 등 너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시고 잘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그 환경을 즐기는 내가 과연 봉사를 하러 온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느슨해진 것도 있어 내가 지금 뭘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할 것이 많은 한달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한 시간도 있었고, 내 주변사람들을 생각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생각을 끝낸 것은 없지만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바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이 곳 스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에 벌써 이별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후 후회하지 않도록!건강하게 화이팅!

K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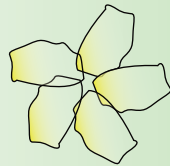
처음 치앙라이로 오던 날, 정 들었던 싼캄펑을 떠나기 싫었었는데 그새 또 치앙라이에 정이 들었는지... 1달 동안 너무 많이 정든 치앙라이 가족들, 다시 그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원망스럽습니다. 싼캄펑에서의 1달, 치앙라이에서의 1달.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3월은 이곳 저곳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고, 4월 달은 3월달보다는 주어진 일이 뻘뻘하지 않아 한 편으로는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치앙라이에서는 짜여진 일정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가장 중점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C.L.P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C,L,P라는 질병이었지만 한 달 동안 참여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은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이 곳에는 왜이렇게 많은 것인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웠고, 어느새 환자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그들이 걱정 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구순구개열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이 곳에는 많은 걸까요? 특히 모금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기위해 평소에 하지 않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기획한 미산가나 할렘 셰이크 같은 작은 일들을 저희끼리 준비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태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두달을 지내면서 태국어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조금은 태국어가 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산가나 할렘셰이크 등등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마을로 들어가는데, 가서도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대해 봅니다.

Nam



어느덧 태국에 온지도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치앙라이에서 지낸 한 달은 산캄펑과는 또다른 경험이었습니니다. 너무나 지내기 편한 환경에 덕분에 자원 활동을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몸도 마음도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몸이 편한 만큼 마음 또한 나태해지지 않도록 활동을 할 때 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펀드레이징과 같이 짜여진 일정은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동영상 제작과 미산가 팔찌 만들기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치앙라이에서부터 데이캠프 아이들과 350ppm 관련 교육을 하고 같이 할렘쉐이크 영상을 찍으면서 350ppm 캠페인을 미리 시작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4월에도 열심히 산 만큼 5월에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Doi



산캄펑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이곳 치앙라이에서의 생활이 저에게는 참 역설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편안한 시설들, 친절한 Y가족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했던 벽화 및 페인트 작업 그리고 CLP아이들을 위한 가정방문과 모금활동들 모두 너무나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과 소통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월부터 느껴왔다’ 는 팀원들의 말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대의견 이후의 제 반응이 무서워제가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을 못하겠다는 팀원들의 말. 처음에는 ‘드센 말투를 가진나를 이해하려고는 해본건가?’ 라는 생각에서부터 ‘그 태도가 싫어서, 말투가 싫어서 혹은 언쟁에 겁먹고 다가오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 아닌가??’ , ‘내 대화방법이 문제인데,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에 함께 일을 하는 부분에서부터 일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을 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때보다 저의 말하는 법, 듣는 법, 함께 일하는법, 생각하는 방향 등 많은 부분에서 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저에겐 조금씩 풀어가야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달은 조금더 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번 더 남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